

과기정통부, '23년도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4개 대학 신규 선정

- 동국대,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 선정 (총 17개 대학 신청)
- 대학당 최대 4년간 총 52.5억원 지원
- 대학당 매년 40명 이상의 인공지능 융합 석·박사 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인공지능 융합을 통한 산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 중인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사업*에 올해 4개 대학이 신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22~'26년, 총 472.5억원(대학당 52.5억원), 석·박사급 인공지능 융합인재 1,260명 양성

이번 사업은 올해 총 17 대학이 신청(경쟁률 4.25:1)하였으며, 선정평가 결과 동국대, 부산대, 아주대, 전남대가 최종 선정되었다.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 사업은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 설계 및 강의,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대학은 기업과 협력하여 산·학 공동 인공지능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산업 수요에 특화된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교차 인턴십, 교육과정 공동 개발,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은 매년 인공지능 융합 관련 40명 이상의 석·박사 양성, 인공지능 융합 특화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발굴 등에 대한 차별화된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다.

동국대는 대학 특성화 분야인 헬스케어·시큐리티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캠퍼스 내에 데이터 생성·수집을 위한 센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산업체 문제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으로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부산대는 지역 전략 산업인 제조·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동남권 기업과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동연구 및 교과목 개설, 채용 연계형 인턴십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발전을 도모한다.

아주대는 아주대학교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바이오 메드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산업체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교과목 이수 의무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인턴십 등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전남대는 광주광역시외의 주력 산업인 에너지·모빌리티 분야의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긴밀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현장 수요 및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에 올해 7.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최대 4년(2+2년)간 총 5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4개 대학은 '23년 2학기(가을학기, 9월)부터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기반한 산업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산업 수요와 연계한 인공지능 연구역량 확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실전형 인공지능 융합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이정숙 (044-202-6326)